

키쿠오의 삶



홍 경 안 의
시시일과

일본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인 요시다 슈이치(吉田修一)의 동명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국보’는 전후 일본 가부키계를 배경으로, 혈통과 제도의 장벽을 극복한 한 예술가가 인간 국보라는 절대적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반세기를 그린다. 야쿠자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 키쿠오의 삶을 통해 예술이 한 인간을 어떻게 빛고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냉정하게 기록했다.

모든 배역을 남성이 연기하는(온나가타) 가부키는 전통적으로 혈통을 중시한다. 예술적 정당성도 그것에서 비롯된다. 대대로 이어진 가문의 이름은 배우의 기량보다 우선하며, 무대에 오를 자격을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법이기도 하다. 키쿠오는 이 질서의 바깥에서 태어난 존재다. 타고난 신체 감각과 연기력, 무대를 장악하는 재능을 지녔지만, 그것을 정당화해줄 ‘희’를 갖지 못했다.

그의 앞에는 가부키 명문가 오미야 집안의 적자 슌스케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무대 위의 미래가 약속된 인물로, 출발선

부터 키쿠오와는 정반대다. 그러나 슌스케 역시 육중한 가문의 이름 아래 개인으로서의 욕망과 불안을 억눌러야 했고 감당해야 할 역할 또한 만만치 않다.

두 소년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엮는 인물은 오미야 가문의 당주이자 당대 최고의 배우 하나이 한지로다. 그는 전통을 수호하는 가부장이면서 누구보다 예술의 절대성을 신봉했다. 아들 슌스케를 엄격히 훈육하며 가문의 명맥을 잇게 하려 하지만, 동시에 키쿠오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전율과 순수한 예술적 감응을 느낀다.

한지로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키쿠오를 제자로 받아들인 후 역사를 상속받는 예명(藝名)까지 물려준다. 이 선택은 가문의 질서 안에서 보면 위험한 균열이었으며, 그 결정의 대가는 두 젊은 배우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슌스케에게는 끝내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결핍이, 키쿠오에게는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기대가 주어진다.

이 과정에서 전설적인 배우 만기쿠의 존재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아름다운 괴물’이라 불렸던 그는, 예술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삶을 거의 소진해버린 존재다. 키쿠오와 슌스케가 바라보는 정상은 사실 상 괴물의 그림자였으나 각자의 방식으로

그 검은 그늘 안으로 다가간다. 경쟁 속 믿음과 질투가 교차하는 가운데 서로를 완성시키는 불편한 공존을 잇는다.

키쿠오는 어린 혼외자에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최고가 되겠다”고 말한다. 그건 야망의 다른 표현이었다. 혈통이 허락되지 않은 세계에서 그에게 최고의 자리는 원래부터 금지된 영역이었고, 그 불가능성은 그를 더욱 집요하게 만든다. 영화는 이 집요함을 미화하지 않는다. 키쿠오가 정점에 이룰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었고, 무대 위의 완벽함을 위해 스스로 속박과 굴레의 늪에 빠진다.

키쿠오는 마침내 국보가 된다. 이는 사회적·제도적 성공이며, 그가 평생 갈망해온 인정의 완성이다. 그러나 영화는 이 성취를 찬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대 위에서 완벽한 형상을 구현한 그의 모습과, 장막 뒤의 텅 빈 실존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피의 계급을 넘어선 욕망하는 인간의 고독을 비춘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자의 고통 또는 애처로움이 담긴 극중 마지막 공연 ‘백로 아가씨’(Sagi Musume)는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오랜 잔상으로 남는다.

/미술평론가

도수치료 논쟁, ‘이익’보다 ‘기준’



기지 수첩
김 주 형
(금융부)

올해 1~9월 5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조48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늘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실손이 또 문제’라는 익숙한 결론으로 흘러가기 쉽다. 하지만 더 중요한 대목은 돈이 몰린 지점이다. 진료과별로 정형외과가 1조8906억원(22.3%)으로 가장 컸고, 해당 지급액의 비급여 비율은 70.4%로 평균(57.1%)을 크게 웃돈다.

이 지점에서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선별급여)로 묶겠다고 하면서 불씨가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

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정했다. 향후 적합성평가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 평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쳐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보험사만 이익 보는 정책”이란 프레임으로 맞선다. 반면 정부는 과잉 이용과 가격 격차가 큰 비급여를 “가격·급여기준 설정과 주기적 관리”로 묶겠다는 취지다.

이 논쟁은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정의돼야 한다. 도수치료가 ‘급여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기준을 만들되, 필요한 치료는 남기고 남용은 견어낼 만큼 기준을 선명하게 설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관리급여는 ‘전액 급여’가 아니다. 관리

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해 환자 본인부담률이 95% 수준으로 설정되는 방식이 거론된다. 가격이 내려가도 환자가 체감할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인식만으로 이용량이 늘면, 실손 지급액은 다른 경로로 다시 볼 수 있다. ‘가격↓’과 ‘수요↑’가 동시에 움직이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가격 및 급여기준은 현재 단계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고, 향후 절차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준을 먼저 선명하게 세우고, 데이터를 통해 남용을 가려내고, 절감 효과가 어디로 흘렀는지 점검하는 장치를 함께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관리급여가 ‘갈등의 명칭’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보험료 논쟁 역시 ‘얼마’가 아니라 ‘왜’와 ‘어떻게’로 옮겨갈 수 있다.

/gh47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24일 (음 11월 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결과부터 챙기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기다려라. 48년생 변화 속에서 기회가 온다. 60년생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는 피곤. 72년생 얻드려 있는 용과 봉황의 새끼를 보라. 84년생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는 날아간다.



37년생 호랑이에게 잡혀가는 신세지만 내릴 수도 없다. 49년생 타인의 시선에 부러움을 느낀다. 61년생 들뜨지 말라. 73년생 난초와 같은 어여쁜 아내와 결혼을 하니까 마음. 85년생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38년생 노력하다 보면 하늘이 도와준다. 50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도록. 62년생 운이 열렸으니 미뤘던 일 찾아서 해내도록. 74년생 벌집에 벌이 모여 들 듯 자손 번창. 86년생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참아라.



39년생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 계속 가야 할 것. 51년생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주관. 63년생 결혼은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여정. 75년생 매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니 어이할까나. 87년생 분수를 지키면 실수가 적어진다.



40년생 말을 소곤소곤하는 사람을 주의하자. 52년생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나니 이 또한 좋구나. 64년생 일이 넘치는데 손이 부족하다. 76년생 사람의 부귀는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 88년생 자식이 예뻐수록 바르게 가르쳐라.



41년생 직장에 충실하고 외부활동을 자제하라. 53년생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이 최선 몸과 마음도. 65년생 운전할 때 인제나 양보로. 77년생 이익을 위하여 몸을 해치는 말라. 89년생 조상님의 산소를 살피고 제사 모시기.



42년생 숨은 실력을 발휘하는 날. 54년생 강을 건너어도 배를 소중히. 66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로 즐거운 하루. 78년생 인생은 허무한 꿈만 같다. 90년생 감정을 자제해야 이득 상대방의 단점을 건드리면 해가 되어 돌아온다.



43년생 어느 구름에 먹구름이 끼었으니 주의. 55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67년생 과욕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도 좋을듯. 79년생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 91년생 끝까지 참은 것이 오늘의 불운을 이겨냈다.



44년생 그 아버지에게 아들. 56년생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많이 피곤하다. 68년생 계획한 지출이 많이 생기니 마이너스다. 80년생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성실한 본분을 지키며 살아보라. 92년생 투자와 투기를 잘 구분하여야 한다.



45년생 여행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57년생 예의가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바르게 된다. 69년생 다툼이 있으나 해결되어 감사한 하루임. 81년생 돈도 재물도 많았으나 일도 많았다. 93년생 문서계약이 순조롭게 풀린다.



46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58년생 일의 진행에서 중요한 것은 신용. 70년생 뒤돌아서서 부러워한다. 82년생 재물을 하나씩 이루게 되어 조상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94년생 하늘도 파랑고 공기도 맑으니 기분도 상큼.



47년생 외로움보다 힘든 건 그리움이다. 59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않도록. 71년생 장기투자는 심사숙고해서 결정. 83년생 얻지못한 물은 다시 주워 담기 힘들다. 95년생 싫다면 떠나가는 사람은 미련을 두지도 말고 원망하지 마라.



김상회의四季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인의 가슴 따뜻한 축제일이며 크리스마스 하루만큼이라도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동심으로 돌아간다. 밤하늘에 빛나는 밝은 별 하나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성스러운 날이다. 베들레헴은 건조한 지역이라 눈이 내리지 않지만, 예수를 사랑했고 기독교 문명을 이룬 유럽과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북반구의 특성상 12월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기에, 눈 덮인 마구간이나 오두막 안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모습이 그려지곤 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 예수가 태어난 도시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전혀 사랑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휴전을 선포하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이슬람계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등과의 전쟁으로 전 세계의 걱정이 크다.

팔레스타인은 예로부터 고대 세계의 중심지이자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3대 유일신 종교의 성지다. 근 천 년 이상 이어진 십자군 전쟁을 비롯하여 근대에 들어서는 여러 차례 중동전쟁까지 세계의 화약고가 되는 지역이다. 예수께서 제일 강조한 것은 ‘사랑’이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어주라는 희생의 사랑이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러한 겸손한 사랑이다. 서양문화의 원류는 존재와 진리에 대한 고뇌를 사랑으로 승화시킨 예수가 있어 가능했다. 비록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아닐지라도 인류 모두의 스승인 예수님이 있어 세상은 등불을 공유하는 썬이다. 乙巳 2025년 크리스마스에는 전 세계의 전쟁이 종식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특히 3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쟁이 속히 종전되어 행복하고 복된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보길 간절히 바라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중
인 색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2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2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4	1						
			5			4		
9					3			5
		2	7	6				
6								9
				3	1	2		
	5		4					2
			1			3		
						6	4	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인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7	9	2	6	8	8	2	1
2	8	8	9	2	1	6	9	7
2	1	6	9	8	7	2	9	8
8	9	2	1	8	9	7	6	2
6	2	9	2	7	8	8	1	9
1	8	7	6	9	2	2	8	9
7	9	8	8	1	2	9	2	6
9	2	1	7	2	6	9	8	8
8	6	2	8	9	9	1	7	2

6	2	2	9	8	9	1	8	7
8	9	1	2	7	2	9	8	6
8	7	9	6	8	1	2	2	9
9	6	7	1	9	8	2	2	8
1	2	9	8	2	7	8	6	9
2	8	8	9	6	2	7	9	1
7	8	6	2	1	9	8	9	2
2	1	8	8	9	6	9	7	2
9	9	2	7	2	8	6	1	8